

감성토크

굿피스²

GOOD PEACE

각 분야 평화인들이 말하는
2020년 시대 공감 평화 이슈!

책을 펴내며

“평화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나?”

(문쌤, 금융전문가)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사회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

(신아영, MC)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사물에 대한 존중”

(타일러 라쉬, 방송인)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게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큰 조건”

(서의동, 논설위원)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연대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조천호, 대기과학자)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일상이 비일상이 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걸 경험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운다는 점이다. 바로 ‘연대와 협력’의 가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잠재적 감염원으로 인식하고 혐오의 눈길을 보내며 봉쇄의 길을 걷는 것 보다, 서로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임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 국경과 인종을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을

뛰어넘어 동물과 자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새롭다.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위기가 일상화된 이 시대에 기존 우리가 익숙하게 대했던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소통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더욱 열망하였다. 평화라는 화두가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여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배움들에서 평화의 중요한 요소들이 도출된다. ‘평화’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평화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잘 느끼고 이해하여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하였다. 이 책은 평화라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평화란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알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려내는 발자국이다. 그것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려내는 흔적이다. 이 책은 환경, 경제, 미디어 등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주제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평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두고 다양한 시각으로 평화를 바라보았으며, 여러 관점에 따라 평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시야와 사고를 확장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들이 평화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평화 메시지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책에서는 평화와 관련된 최신 이슈들도 다루고 있어 시의성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이번 위기가 새로운 평화를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일상을 제약하고 있는 이 위기는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위기 이후 누구나, 특히 미래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통일교육원장



참가자 소개

신아영 (방송인, MC)	-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학사 - SBS ESPN, SBS Sports 아나운서 - MBC every1 <영화왓수다> 등 MC	MC
타일러 (방송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석사 - WWF(세계 자연 기금) 홍보대사 활동 - 저서 「두번째 지구는 없다」 등	문화
조천호 (대기과학자)	-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 - 前 국립기상과학원장 - 저서 「파란 하늘 빨간 지구」 등	과학
서의동 (논설위원)	- 신문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 저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북한 안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북한
돈 쌤 (금융전문가)	- 경제학 1교시 경제연구소 소장 - 유튜브 '경제학 1교시' 운영 - 저서 「돈테크 가계부」,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경제

CONTENTS

Episode. 01 피스 메이커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	013
기억에 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016
요즘 떠오르는 피스 메이커는?	021
그레타 툰베리가 피스 메이커로 주목받는 이유?	025
기후 위기, 평화를 위협할 만큼 심각할까?	028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시장경제는?	036
주목할 만한 피스 메이커는 누구?	040

Episode. 02 평화 머니

한반도의 통일, 꼭 해야 할까요?	049
한국도 통일 후 세계 5, 6위권 경제 대국 실현 가능할까?	053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어떤 방법이 좋을까?	056
2020년, 북한의 모습은?	066

Episode. 03 평화 이슈

평화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083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은?	092
가짜뉴스,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	095
북한 관련 가짜뉴스	099
'평화'란 무엇인가?	103

EPISODE. 01

피스 메이커

PEACE MAKER

PEACE MAKER

피스 메이커



피스 메이커도 시대를 반영한다

신아영 평화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살펴보고 2020년 평화 이슈를 탐구해 보는 <굿 피스 Good peace> 시즌2. 안녕하세요. 신아영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하실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보기만 해도 평온해지는 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 경각심을 알리고 계시는 분이죠. 글로벌 뇌섹남 타일러 씨.

타일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아영 기상청에서 30년간 기후변화를 연구하신 조천호 대기과학자님.

조천호 네. 안녕하세요.

신아영 금강산 포함, 북한을 여섯 차례 방문한 북한 덕후, 서의동 논설위원님

서의동 안녕하세요.

신아영 그리고 핫한 금융전문가. 돈 이야기꾼, 돈쌤. 정현두님 반갑습니다.

돈 쌤 반갑습니다.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

신아영 논설위원, 과학자, 금융전문가 그리고 뇌섹남. 어떻게 보면 ‘평화랑 크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가우똥해지는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평화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타일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데, 노래에 ‘Count Your Breath And Think of

Inner peace.’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아영 내면의 평화. 저는 왜 래퍼들이 랩을 하다가, “치키퉼 치키퉼 피-스!” 하는 게 생각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튼 썸 평화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상생활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상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기술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이요. 또 보이지 않는 제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선거라든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적어도 전쟁이 나서 마구잡이로 끌려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서의동 아까 타일러 씨가 음악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일랜드 록밴드 그룹 ‘U2’가 내한공연을 했었잖아요. 그중에서도 ‘ONE’이라는 노래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퇴장할 때 나왔다고 하죠. ‘We’re one but we’re not the same’ 우리는 하나지만, 우리는 같지는 않다. 서로 다른 상태에서도 공존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U2 밴드가 생각이 납니다.

조천호 제가 20대 때인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남북 정상이 우리 판문점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게, 어떤 대립의 경



2018 남북정상회담(출처: ktv, 한국정책방송원)

계면이 무너지는 곳, 그곳이 바로 평화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아영 각자 평화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평화를 인문학적으로 풀어 보는 <굿 피스> 시즌2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인물 피스 메이커, 평화 머니, 그리고 2020년 평화 이슈.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스 메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화를 만드는 인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노벨

평화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서의동 아무래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했었죠. 그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했지만, 한국 사회가 북한을 보는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시선을 조금 바꿔놓는 데에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 협력관계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출처: ktv, 한국정책방송원)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70년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 기념비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 후 독일 통일 밑거름 마련. 1971년 노벨 평화상 수상(출처: 게티이미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기억에 남네요. 흑백 분리정책은 굉장히 극단의 차별 정책이었는데 감옥에 27년간 계시면서도 계속 투쟁하셨잖아요. 철폐를 위해 투쟁을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분이 있었고,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 사실은 독일이란 나라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을 했는지가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가 빌리 브란트 총리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

를 꿰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이 독일이 진정으로 이웃 나라와 공존하겠다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신아영 김대중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리고 빌리 브란트. 타일러 씨는요?

타일러 저는 환경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케냐 출신의 흑인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분이 30년 동안 나무를 심으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나무를 심었느냐면

왕가리 마타이(Wangari Muta Maathai): 30년 동안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아프리카 여성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출처: 게티이미지)



30년 동안 3천만 그루를 심으셨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케냐라는 나라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말이죠. 이런 영향이 장기적으로 미치게 되니까 환경문제라고 한정적으로 보지 않고, 평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가리 마타이라는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신아영 또 다른 분들은요?

트 섀 앞서 정치인, 환경운동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단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유럽은 2차 대전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대륙이었잖아요. 전쟁이 잦았는데, EU가 나오면서 유럽이 통합되고, 강대국이 전쟁을 멈췄잖아요. 이것 때문에 EU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전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요. 게임이나 영화는 ‘히틀러가 없었다면 과연 몇 편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 시켜준 게 EU였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적십자가 노벨 평화상을 더 많이 받긴 했지만, 저는 유럽연합이 기억에 남아요.

신아영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평화 인물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타일



러 씨는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환경 분야의 인물을 떠올리셨고, 서의동 논설위원은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으로부터의 평화를 말씀해주셨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돈쌤께서는 금융 전문가이시다 보니 EU를 생각하셨네요. 그렇다면 요즘 떠오르는 가장 핫한 피스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요즘 떠오르는 피스 메이커는?

조천호 사실 노벨 평화상에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평화를 이끈 게 아니라, 평화를 줌

생각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이죠. 자기가 후보에 올랐다고 하면 평화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이에 반대에 계신 분. '이분은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네. 한센병 환자가 있었던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에서 40년 넘게 봉사를 하셨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오스트리아 간호사분들이 얼마 전에 한국을 떠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지금 동의도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분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아영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타일러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워싱턴DC에서 살았거든요. 워싱턴DC에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호세 안드레스라는 스페인 사람이예요. 그분이 식당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와 스티브 잡스의 부인과 같이 구호기금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10년 동안 재난 지역에 있는 400만 명의 사람에게 무료 급식을 했어요.

돈 쌤 아시는 분들의 스케일이 다 크시네요. 아까는 3천만 그루를 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400만 명을, 그 정도

면 부산 시민보다 많은데요. 대단하신 분이네.

신아영 올해의 노벨 평화상 후보에 누가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콩 시위대,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가 올랐습니다.

조천호 지금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추천되는 분을 봤을 때 환경운동가가 추천을 받고 있어요. 매년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세계 정상, 정책결정자, 기업인이 모여서 세계 위험의 가능성, 영향력에 대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가 전 세계 위험의 우선순위였었죠.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든가 자연환경의 변화가 가장 위험으로 다가올 제1순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기후 위기의 위험을 알렸던 스웨덴의 17살 소녀인 그레타 툰베리가 가장 평화의 상

202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홍콩시위대와 그레타 툰베리(출처: 게티이미지)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기후 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출처: 게티이미지)

징이 되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서의동 비슷한 연령대로 노르웨이의 페넬로페 레이라고 하는 16살 환경운동가도 있어요. 10대가 기후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10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소비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기후변화를 당사자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보다 절박함을 느끼는 나이가 아닌가 합니다.

신아영 저도 좀 창피하지만, 성인이 되고부터 환경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10대 때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출처: 서터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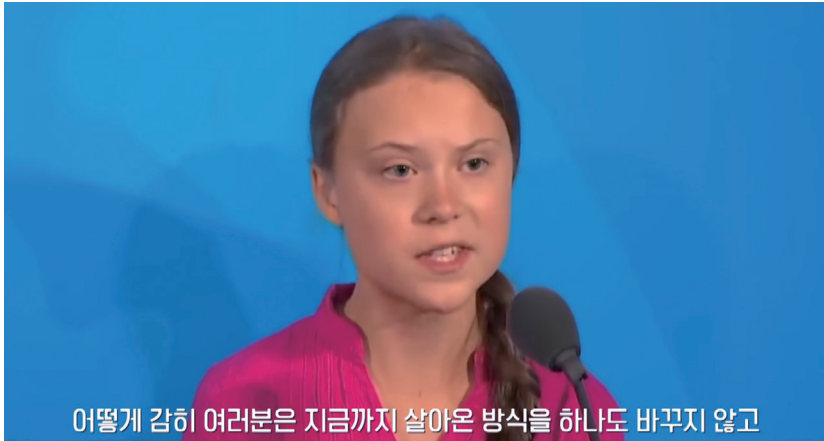
포스터를 그리고, 재활용을 열심히 한 기억은 있거든요. 물론 요즘 10대 환경운동가분은 스케일도 남다르고,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그레타 툰베리하면 가장 단기간에 가장 강한 임팩트를 준 10대 환경운동가인 것 같아요. 2년 연속 노벨 평화상에 노미네이트.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700여 개 도시 160만 명의 청소년을 움직인 환경운동가. 이 그레타 툰베리가 피스 메이커로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레타 툰베리가 피스 메이커로 주목받는 이유?

조천호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의사당 앞에서 골판지였다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것을 써 붙이고 시위를 시작했죠.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의사당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면 되잖아.” 그때 툰베리가 한 대답이 유명해요. 자기가 ‘20년, 30년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이미 기후 위기로 인해 세상이 붕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권력을 갖고 있는 의회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타일러 눈앞에서 미래를 빼앗아 가는데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How dare you’ 연설을 했죠.

조천호 맞아요. 툰베리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3월 15일에 기후파업 Climate Strike이라는 것을 유럽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고, 작년 9월에도 기후파업을 했는데, 그때에는 전 세계에서 5백만 명이상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었



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출처: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 중(2019.09.23.)

고요. 이 기후파업의 시작점은 2년 전 스웨덴 의사당 앞에 골판지를 써 붙였던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타일러 그레타 툰베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부분이잖아요. 그렇기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명받고, 제안받고, 결정나고, 받는 순간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가 사양했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라는 이슈가 가볍게 끝이 날 것 같거든요. 끝나면 안 되는 이슈인데 말이예요. 지금 환경 쪽으로 목소리를

많이 빌려주고, 귀를 기울여 주고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고 나면 “도장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서류를 보는 길로” 이렇게 될까 봐요. 그래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트 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음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매 끼니마다 재활용을 하기 힘든 플라스틱이 엄청 나오잖아요.

타일러 그렇죠. 한동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어 버리니까.

트 섀 네. 우리의 건강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묻혀 버렸죠.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불편함에서 외면 아닌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대책도 없잖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신아영 근데 외면을 할 수 없게 툰베리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위기와 싸우는 잔다르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졌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레타 툰베리에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사람들이 2차 기후 파업에 동참 중이다.(출처: 셔터스톡)

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평화를 위협할 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기후 위기,
평화를 위협할 만큼 심각할까?**

서의동 저는 오늘 녹화를 올 때, 옷을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4월에 입을 만한 마땅한 옷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날씨가 추워서 겨울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후의 변화라는 게 어떤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예측 불가의 상태인 것 같아요. 위협을 느낀다기보

다는 그런 점에서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타일러 너무 당연하게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노후관리를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30대부터 시작해서,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를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대학에 어떻게든 가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용없어요.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2048년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모델을 보수적으로 돌리고 있는 걸 보면 2048년에서 2050년에 해수면이 이미 60cm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는 거예요. 이걸 저의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의 말 중 너무나 공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감히 그제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느냐'였죠.

조천호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앞서 타일러님께서 말씀하신 60c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잖아요. 이게 표면부터 차분하



게 녹을 경우에 그 정도 올라간단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탕을 입 안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으면 오래 가죠. 근데 깨트리는데 순간, 순식간에 녹아 버리잖아요. 빙하가 깨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못 해요. 60cm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빙하가 안 깨지는 상황에서, 녹는 상태를 예측을 했을 때를 말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에 최대 1.1m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이것만 갖고서도 대부분의 대형 도시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저지대가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빙하가 깨진다면 어느 정도냐.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6m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남극 빙하가 다 녹게 되면 60m 이상의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요.

서의동 6m면 어느 정도….

조천호 6m면 어느 정도냐면 해안에 있는 큰 도시는 대부분 잠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인 반면에, 저지대, 예를 들어 뉴욕이나 상하이 같은 데는 다 잠겨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아영 그렇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기후위기 때



문에 해수면이 붕괴되고, 도시 자체가 만약에 붕괴되면 살아남는 국가라든지, 지역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은 거기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지로 내몰리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 쌤 부자 동네에 사느냐, 저렴한 동네에서 사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타일러 이미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뉴욕에 유명한 펜트하우스를 만드는 아키텍트Architect가 있거든요. 뉴욕주에서 올라가면 나오는 산림지역에 돈 많은 사람이 큰 땅을 사 놓고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한 부동산 건물을 짓고 있어요. 심지어 몇 년 전

에 잭 마Ma Yun가 그 지역에 땅을 샀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고, 이미 거기에다 돈을 넣고 있는 거죠.

트 쌤 사실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IT 천재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인터스텔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부자가 지진 나면 넘어와서 살겠다고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사 놓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일본에 국한된 위험이었다면, 이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신흥 부자는 20년 뒤에도 자신이 그곳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 지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조천호 하나의 예가 러시아인데, 2010년도에 러시아에 가뭄이 일어났었습니다. 러시아가 밀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해는 국민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수출을 금지했죠. 당시 밀가루 가격이 한 몇 달 사이에 60~70% 쪽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 튀니지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폭동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걸 아랍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통스러웠어요. 이미 시리아는 2005년도부터 계속 가뭄이 들어 있었죠. 대부분 가난한 나라 사람은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 구입에 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아랍의 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反)정부 시위 운동(출처: 게티이미지)

60~70%가 올랐으니 얼마나 굶겠어요. 결국 시리아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IS라고 하는 극렬분자도 나온 것이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0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가뭄이 전 세계 문제로 번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나요. 그 당시 시리아 난민이 현재 1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가뭄으로 100만 명인데, 앞으로 0.5℃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약 1억 명이 거주지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2℃ 이상이 되면 7억 명까지도 거주지를 잃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아영 기후 위기가 계속될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시장경제는?

돈 쌤 러시아에 가뭄이라는 자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인간의 결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미국에서 2차 양적 완화를 시

작합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차 양적 완화를 했지만, 여의치 않으니깐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세계시장에서는 ‘아, 처음 한 번 돈을 푼 거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워낙 컸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양적 완화를 시행하니깐 세계시장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공급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 치즈, 모든 것으로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때 피자집을 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단위가 다를 정도의 재정을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너무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판단에서는 ‘기름이 싸졌는데 기름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조천호 기후과학에서는 시장만 노력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로 낮추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만 배출해야 해요. 그리고 2050년에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하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문명을 이뤄 왔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하지만 화석 연료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시 상황이에요. 결국, 전



세계가 손을 붙잡고,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줄여 나가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아영 그렇다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천호 그래서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미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50% 가까이 생산하고, 미국 조차도 20% 이상을 올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태양열 패널의 가격과, 배터



출처: IRENA

리 가격이 거의 85% 내렸어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49%로 가격이 떨어졌죠. 세상에 이렇게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없어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이 상황을 눈치채고 준비하는 나라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만 갖고서는 3%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 그러죠? '국토에 할 만한 곳이 없다', '환경을 파괴한다', '우리나라는 햇빛이 적은 나라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남유럽하

고 위도가 같은 나라입니다. 독일의 위도는 만주쯤 가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데도 햇빛 에너지에 변명을 대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유럽 같은 데서는 10년 안에 화력발전을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투자 회사가 화력발전에 투자를 안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더 짓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짓고 있어요. 기후 위기 자체를 위기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위



기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아영 저희가 그레타 툰베리로 시작해서, 대체 에너지, 그리고 돈샘 친구 피자집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만큼 이 ‘한 명의 피스 메이커가 곳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초반에 ‘피스 메이커도 시대를 반영한다’,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인물이 피스 메이커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일러 씨?

주목할 만한

피스 메이커는 누구?

타일러 정말 모르겠네요.

신아영 그렇죠. 말씀을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해결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피스 메이커가 또 등장을 할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가요?

서의동 당장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에 인간 안전, 인간 안보, 생명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고 생각을 해요. 요컨대 백신을 만드는 데에 공헌했다는 과학자 같은 분들이죠.

돈 샘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태그 있잖아요.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한테 응원을 보내는 건데.

서의동 그게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돈 샘 네. 덕분에 챌린지의 손짓이 수화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최고’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건 의료진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아영 자, 이렇게 평화를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굿 피스>
시즌2 첫 번째 주제로 평화를 만드는 인물, 피스 메이커에 대해
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PISODE. 02

평화 머니

PEACE MONEY

PEACE MONEY

평화 머니



자연스럽게 통일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신아영 평화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살피고, 2020년 평화 이슈를 탐구해 보는 <굿 피스> 시즌2. 피스 메이커에 이어서 평화 경제, 평화 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이 세계 평화지수 55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타일러 미국은 훨씬 낮거든요.

신아영 아 그래요?

타일러 미국은 128위에요. 지수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대내외적 분쟁에 어떤 게 있는지, 사회 안전과 군사화 총 세 가지 분야로 책정해요.

돈 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55위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47위였어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뒤에 있고요. 영국, 대만 이런 나라가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

굿 피스2 세계 평화 지수로 본 한국

1위	-	아이슬란드	1.072점
9위	↓1	일본	1.369점
36위	↓2	대만	1.725점
45위	↑5	영국	1.801점
55위	↓9	한국	1.867점
149위	↓1	북한	2.921점

돈 쌤 영국 대만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아영 그럼 현재 1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타일러 그러게요?

조천호 저는 아이슬란드로 알고 있는데요.

타일러 혼자 살면 된다. 인구가 많이 없고.

서의동 뉴질랜드가 2위고, 포르투갈이 3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튼 쌤 우리가 알 만한 나라는 일본 정도. 9위예요.

타일러 군사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나라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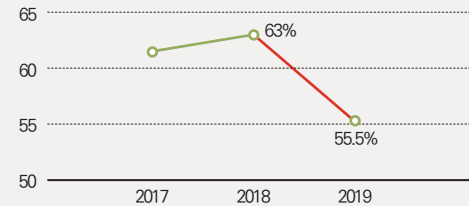
튼 쌤 사회 내 갈등이 적은 나라들인 것 같아요.

신아영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순위 나오면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55위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서의동 줄 세우기에 아주 특화된 나라(웃음).

신아영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면서 통일을 빼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2019년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학생이 55.5%로 2018년보다 7.5%가 줄었다고 해요. '전혀 필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 인식 변화
“통일이 필요하다”



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학생도 19.4%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한반도 통일, 꼭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서의동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반도의 통일, 꼭 해야 할까요?

서의동 최근에 통일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쓰려고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일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의 문제는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북한과 교류를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



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통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화로운 분단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를 맺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본사람들과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평화로운 분단으로 볼 수 있겠네요.

대만하고 중국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어요. 2010년에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맺고, 지금은 서로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경제·문화·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수준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죠.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미사일로 대만을 위협하는 미사일 위기도 있었고.

평시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체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갈등으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적으로도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들이 많죠.

트 썬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우리하고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 어려워요. 중국 같은 경우는 타국으로 지낼 수도 있었어요. 중국이 무리하게 대만을 자기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 보거든요. 대만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대만도 중국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오히려 통일을 하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서의동 어느 한쪽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는 거죠. 오랜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공동체 상태를 만들고 구성원이 통일에 대한 욕구가 흘러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형태의 통일이 좋다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이죠.



통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종전!**

신아영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상황이 워낙 특수해요. 그 초, 타일러 씨?

타일러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통일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전을 하기도 전에 통일 얘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전을 먼저 해내야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포가 향해 있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것저것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통일 할까? 손 잡을까?' 하면 서로 통일을

얘기해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진지한 통일일까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종전이 우선시 되어야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진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의동 타일러 씨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아영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종전을 휴전과 착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돈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싸다. 여기에 그나마 비교가 되는 나라가 동독하고 서독인데, 지금 독일 경제 탄탄하잖아요.

한국도 통일 후 세계 5, 6위권 경제 대국 실현 가능할까?

돈 샘 굳이 찾으면 가깝지만, 굉장히 멀죠. 독일은 통일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수라고 봐야 돼요. 경제 격차도 45% 차이가 났었죠.

신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문제에서 경제가 휘청하지



않았나요?

돈 씨 휘청한 정도가 아니라 한동안 유럽의 병자가 됐었죠. 돈을 어떻게 했느냐. 동독에도 마르크가 있고, 서독에도 DM이라고 도이치 마르크를 썼거든요. 하지만 화폐 가치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동독하고 서독은 그냥 1:1로 해줬어요.

일단 서독은 국채 발행을 했고,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과 시민이 고통을 많이 받았죠. 우리도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자금대출 같은 것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동독은 돈 가치가 올라갔어요.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임금은 같이 올라갔어요. 통일되면 한 나라인데, 최저임



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동독은 올려줬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이 둘은 마르크지만, 우리도 북한도 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통일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합의도 없어요.

타일러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할머니도 오스트리아분이셨고, 친척이 다 독일에서 살고 있거든요. 나치 당시에도 그 땅에서 살고 있었고, 전쟁이 다 끝나고 독일이 분단이 되었을 때도 동

독에 친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통일이 될 수 있었던 큰 변수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이미 유럽연합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예요. 60년대부터 이미 의정서가 나오고, 유럽연합을 만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지하자원의 실질적인 분배 같은 것이 이미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동북아시아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려면 종전을 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겨야지 대화가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아영 그렇다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타일러 씨는 무엇부터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어떤 방법이 좋을까?

타일러 저 같은 경우에는 종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환경과 연결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잘 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종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종전하면 공동 프로젝트로 치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서의동 타일러 씨 말씀대로 동북아시아에 공동의 집을 짓자고 일본의 학자 와다 하루키가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동북아시아 연합처럼 다자협력, 다자평화 체제를 생각하면서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들어가야 하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신아영 큰 문맥에서 봐야 한다.

서의동 타일러 씨가 종전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참견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동서독이 진정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동서독 간 맺은 조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을 하고, 불가침 조약을 하고, 내정 간섭 하지 않는다는 조약이었죠.

튼 쌤 통일 20년 전에 이미 테스트가 된 거죠.

서의동 남북도 서로 쿨한 관계로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통일을 생각하고 남북 간의 서로 부담 없이 접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조천호 인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 평화가 온다고 하잖아요.

신아영 Inner peace.

조천호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길 바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고 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북아시아 구도 안에 너희가 들어와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도 안에서 너희는 따라와야 한다’라는 상황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아무리 선의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한테 얼마나 선의로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애는 죽는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신아영 대등해야 한다.

조천호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으로 한 번 생각해봐야 평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아영 타일러 씨 이야기랑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무의식적으로 ‘종전은 곧 통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은 곧 종전이고, 종전은 곧 통일이다’인데,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종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건데,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통일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나라가 한 나라에 흡수가 되는 건데, 그렇

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이 되지는 않겠구나. 개념 자체에서 ‘나는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등한 입장에서 어느 한 나라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게, 네 분 말씀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트 쌤 통일이란 단어를 놓고 동상이몽인 거죠. 우리는 통일을 ‘우리가 북한을 거두어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 북한에서는 ‘재네를 해방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같지, 같은 한국어를 쓰는 게 비극일 정도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



어요. 대등 이전에 너무 다른 접근을 하는 것 같았죠.

우리가 통일을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는 ‘너희들 곧 망할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도 있는 거죠.

서의동 그렇죠. 통일을 많이 얘기할수록 통일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신아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협력과 교류를 하자.

튼 쌤 소개팅을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결혼 이야기하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신아영 주선자한테 바로 전화하죠. “이 사람 뭐냐” 하고.

튼 쌤 네. 서로 알아 가면서.

신아영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통일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분도 있어요. 통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북한에는 광물도 있고, 자원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했을 경우, 세계 5~6위권의 경제대국까지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일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서의동 그래요. 지금 북한의 철광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함경북도 무산철광은 중국하고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거죠.

튼 쌤 지금 우리나라는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조천호 거기에다가 또 다른 측면을 더한다고 하면, 생태 발자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건의 생산과 폐기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면적을 계산한 것인데, 순환적으로 우리 영토 안에서만 먹고 산다고 한다면 8.5배나 되는 남한 면적

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수가 세계 1위예요. 일본은 7.9배 영토가 더 필요해서 2위이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3% 밖에 안 돼요. 게다가 에너지 자원은 수입을 해서 개발하고 수출을 해야지만 5천만 명이 먹고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과 평화적인 상태가 되면, 이러한 생태학적인 위험성은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기후 위기나 환경의 위기가 오고, 외부로부터 우리가 고립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특히 북한하고 휴전선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륙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섬나라에 불과하고요.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도 남북 연결성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튼 썸 분단돼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평화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평화를 넘어서 통일까지 가는 게 고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아영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현빈 씨가 나왔던 굉장히 뜨거웠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조천호 님, 왜 다



른 데를 보시죠?

조천호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신아영 제가 링크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의동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요.

신아영 링크 많이 보내드릴게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온 장마당 풍경도 좀 인상적이었고, 손예진 씨의 '어서 가세요' 헤어 스타일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탈북민에게도 여쭙보면 현실고증이 잘된 드라

마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북한이 그런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서의동 님, 어떤가요?

2020년, 북한의 모습은?

서의동 글썽요... 제가 북한에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3번을 갔다 왔는데요. 2000년 8월에 북한을 갔었을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 끝자락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건물에 페인트칠이 안 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입주해 해요. 페인트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8월이면 한여름인데, 예술극장에서 민족공연 같은 걸 보여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때 한 2,000명 정도 수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에어컨을 안 트는 거예요. 참고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

돈 쌤 북한 사람은 에어컨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요?

서의동 네. 저희는 비지땀을 흘리면서 보던 기억이 나네요.

재작년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정상회담하러 가셨을 때, 영상을 보면서 제 눈에 띄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대동강변에 수산물 식당이라고 엄청나게 큰 식당이 있었거든요.

돈 쌤 북한에 노량진 시장이 생긴 거예요.

서의동 그 식당으로 문 대통령이 저녁을 먹으러 갔었어요. 영상을 보면 2m 넘는 철갑상어도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북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이 회라고 그랬거든요. 생선회. 전력공급이 끊겼다 안 끊겼다 하나까.

돈 쌤 금방 상해서...

서의동 상할 수도 있다. 근데, 대규모의 수산물 식당을 짓는 것은 적어도 평양은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가 됐죠.

돈 쌤 수조에 전기가 끊기면 물고기 다 죽어 버리니까.

서의동 저는 그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북한 시내 건물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돈 쌤 제가 구매해본 적은 없지만, 평양 아파트가 현가로 한 2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화가 오면 '대동강자이 아파트'라든지, '인민 레미안' 같은 것이 대동강변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비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아영 한강뷰 대신에 대동강뷰.

돈 쌤 그렇죠.



서의동 원래 아파트 거래가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거래가 되고 있죠.

돈 쌤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의동 저기도 약간의 자본가 계층, '돈주'라고 불리는데, 자본을 동원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몇 개는 본인이 가지죠. 그래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신아영 돈쌤 말씀 들으니까, 투자가 하고 싶어져요.

돈 쌤 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이 통일됐을 때, 유틸리티라고 하죠? 전선을 설치하거나 시멘트를 매우는 사업이 떴다가, 통일 이후로는 은행이 떴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북한은 신용등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믿고 공사를 할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용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신용 공유가 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신아영 만약 북한과 교류가 성사가 된다면, 저는 금융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쌤 네. 장기로 보셔야 합니다.

신아영 여러분은 투자하고 싶은 분야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돈 쌤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도로도 깔리고, 열차도 깔리고 해야 하니까 흔히 유틸리티를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좀 짧은 거라고 봐요. 북한이 계속 다 할 순 없잖아요.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더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콘텐츠.

서의동 저는 북한 음식. 북한 음식의 한국 진출에 투자하는



블루오션 공략?
투자를 하고 싶어졌어요

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그 허가권을 갖는 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합니다.

신아영 음식, 푸드, 타일러 씨는요?

타일러 어... 정말 어렵네요. 저는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투자할 권리가 있을진 모르지만, 있다고 쳤을 때는... 아... 정말 어렵네요.

콘텐츠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반도와 바깥의 관계를 또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생기자 보니까 그런 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아영 콘텐츠.

튼 쌤 통일되는 이야기만 영화로 찍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신아영 혹시 조천호님께서는?

조천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걸 해본 일이 삶에서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는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아영 금융업을 얘기했던 제가 참 초라해지네요.

조천호 부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워낙 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웃음).

신아영 저는 그래도 금융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튼 쌤 금융에 투자가 되어야 사람에게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조천호 맞네. 그럼요. 금융이 있어야지 투자도 하는 거죠.

서의동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나름대로 평양의 상류층 생활도 나오고, 전망에 있는 전망 사택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발전을 해가면서 빈부격차도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낸 것 같더라고요.

신아영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 좀 호전적인, '부쉬! 다 적이야! 싸우자!' 같은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변했는지 궁금하네요.

서의동 평양 정상회담 때, 일행으로 따라간 경제인 중에 삼성의 이 모 부회장.

신아영 성함 말씀해도 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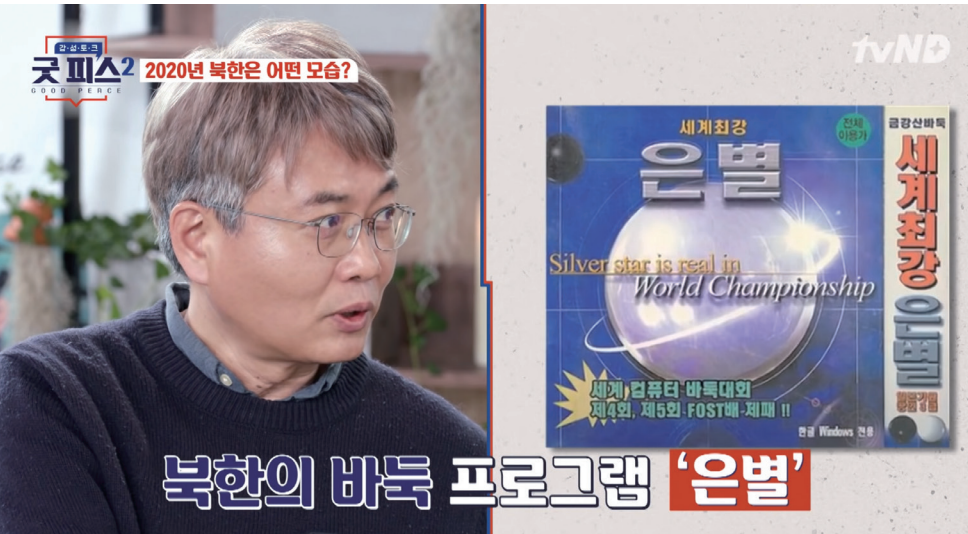


서의동 그래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올라갔어요.

평양역 옆 건물에는 옛날에 '미제 타도' 같은 생경한 구호가 쪽 써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과학 중심, 인재 중심'이라는 표어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 표어가 '기술 중심, 인재 중심'이에요.

조천호 표절은 아니겠죠?

서의동 북한도 과학 기술 쪽에 매진을 하고 있고, 이공계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윤택해



지다 보니까 거친 부분은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신아영 그럼 지금에서야 올라오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기술 과학에 투자를 해서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의동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국방 과학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이나 안면인식 쪽에도 꽤 기술력이 있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이세돌 9단하고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 알파고를 북한에서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신아영 아 진짜요?

서의동 은별이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의 1세대 격인데, 바둑 프로그램끼리 세계 대회를 열어서 경연을 해요.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회에 북한이 2003년부터 4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고 해요.

튼 쌤 그때는 해외 인공지능은 다 체스 둘 때 아니었습니까.

서의동 아니요.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개발을 했었고.

튼 쌤 아, 동양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바둑이다 보니까.

서의동 지금처럼 아주 대다수는 아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쪽 프로그램으로 우승을 한 거죠.

튼 쌤 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체스보다 바둑이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서의동 그렇죠. 훨씬 더 고난도의 프로그램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거죠.

신아영 꾸준히 발전했고,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조천호 날씨 분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학술 대회를 할 때, 북한 학자들이 참가해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 좋은 관측기기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 작은 컴퓨터와 부족한 관측망으로 이뤄낸 업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친구들의 실력이 저 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의 여건이 마련만 되면 금방 쫓아올 수 있다고 봐요. 여건이 우리와 비슷해지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은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친구들 정도의 수준이면 교육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동일한 장비를 제공해 주면 1~2년이면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신아영 우리나라는 또 문화강국이잖아요. K-POP, 영화가 난리인데, 영화 <백두산>을 혹시 보셨어요? 북한 특수요원인 이병현 씨가 하정우 씨에게 “<다모> 결말이 뭐냐”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서의동 <사랑의 불시착>에도 나오잖아요. 북한 병사 주먹이로 나온 친구가 <추노> 결말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장면. 자기가 <추노>를 보다가 끝을 못 봐서 대길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신아영 북한 주민분은 결말을 못 보시나 봐요. 매번 결말을 물어봐.

서의동 완제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돈 쌤 결말은 조금 비싸게 팔 거 같아요. 마지막화 USB는 조금 비싸게.

신아영 역시 경제.

돈 쌤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서의동 어떤 드라마가 뜨면 6개월 뒤에 북한에서 유통이 된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한국 콘텐츠는 거의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탈북해서 온 친구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등병의 편지’가 북한 노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갈 때 불렀다고.

돈 쌤 거기선 이등병이 너무 기니까.

신아영 JSA에도 나왔잖아요.

서의동 김광석 노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다 북한 노래인 줄 알았다는 거죠.



출처: Youtube - BODA

토 썸 군대 갈 때 마음은 다 똑같군요.

신아영 혹시 타일러 씨도 아시나요? 이 노래.

타일러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아닌가요?

신아영 맞아요.

한반도 통일에 관한 평화 머니부터 최근 북한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화적 교류가 또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pisode. 02 **평화 경제**



EPISODE. 03

평화 이슈

PEACE ISSUE

PEACE ISSUE

평화 이슈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게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신아영 평화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굿 피스> 시즌2. 평화 인물, 평화 머니에 이어 2020년 평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디지털 평화부터 짚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당장 오늘도 뉴스가 속보로 하나 뜨더라고요. 다들 보셨죠? '김정은 위독하다' 이렇게 뒀는데, 가짜뉴스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평화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돈 쌤 들썩이는 것 중에 최고는 지난 미국 대선입니다. 가짜 뉴스 영향이 컸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러시아에서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것이 뉴미디어 등장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책임 없이 내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 버린 거잖아요.

서의동 게이트 키핑*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뉴스에 가치를 부

* **게이트 키핑** : 뉴스 미디어 조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장과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



출처: 더 가디언

여하고, 취사선택해서 독자한테 제공하는 게 옛날 전통 미디어였잖아요. 1인 미디어가 생겨나가면서 소스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 힘든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수용자가 어떻게 변별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천호 전통 미디어 자체에서도 기후변화 분야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못해서 지구 환경을 위협으로 빠뜨려 버린다’ 같은 가짜뉴스를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도 다뤄 준단 말이죠. 그래서 2015년에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 가디언은 ‘다시는 기후

변화 부정론을 우리 신문에 신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는 대립된 의견처럼 보이지만, 가짜거든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과학이죠. 과학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사실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기후 변화 부정론은 이 과학적인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전통적인 학회에서는 전혀 발붙일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는 가짜뉴스를 언론에서는 ‘오! 다른 의견이 있네?’라며 이것을 올려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전통 미디어도 제대로 분리를 못 해낸다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신아영 너무나 명백한 가짜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조천호 그러한 것이 지구를 위험하게 또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돈 씹 미디어도 산업이잖아요.

신문 같은 걸 보면, 부동산이 잘될 거란 기사 다음장에 꼭 아파트 분양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그쪽도 미디어의 대

당신이 보는 뉴스는 진짜인가요? 팩트체크하세요!



형 광고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디언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요. 광고주의 상당 부분을 거절한 거니까.

타일러 기후변화도 가짜뉴스가 많이 섞여 있고, 언론이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짜뉴스 문제가 모든 분야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 문제 관련해서 '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문을 가지고 퍼졌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 정보를 두고 봤을 때, 정보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상실한 거예요.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나 '이 정보가 어떻

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고민을 안 하고 보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영향이 큰 거 같아요.

신아영 맞아요. 요즘에는 합성도 많이 하니까, CNN, BBC 화면에 자막만 바뀌서 퍼트리잖아요. 그게 캡처가 돼서 사진이 메신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졌을 때, CNN 화면에 자막만 바뀌서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죠. 예방을 위해서 마셔야겠구나. 하지만 결국 합성된 거였잖아요. 좌절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마셨습니다. 하하하.

트 섀 하하하. 70도 짜리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신아영 이런 식으로 뭔가 출처를 따질 것도 없이, 합성된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니까.

트 섀 예전에도 믿음이 좀 많이 떨어지는 '옐로우 메거진'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반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솔하게 실리고 하면 '꽤 중요한 일 이구나'라고 물리적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잖아요.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게 음악이나

영화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문제에 부정적인 영상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비슷한 영상만 추천되다 보니까 사실로 받아 들여진다는 거죠.

타일러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 어플 있잖아요. 거기 블로그 섹션하고 뉴스 섹션이 모바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블로그에 나온 내용이 기사처럼 쓰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정보인지 혼동하게 되잖아요. '아까 블로그를 본 건지, 기사를 본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출처는 클릭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돈 쌤 블로그 섹션도 그렇지만, 유튜브는 뉴스하고 화면이 거의 똑같은 템플릿을 판매해요. 모르고 보면 언론사의 9시 뉴스 같은데, 알고 보면 1인 미디어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1인 미디어는 자신이 발설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이게 엄청나게 링크를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신아영 예전에는 가짜뉴스가 조금 가볍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있어도,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본



질에 해를 끼치진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19를 겪고 '어? 이게 나의 건강과 나한테 정말 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황당한 가짜뉴스를 저희가 모아 봤습니다. '헤어드라이어로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다',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는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한다', '5G 기지국이 신종 코로나를 확산시킨다' 마지막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타일러 진짜 그 가짜뉴스 때문에, 영국 사람이 기지국에치고 들어갔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신아영 그러니까요. 딱 봐도 '5G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영역 자체가 다른 거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튼 쌤 화풀이할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걸 찾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조천호 1300년대에 소빙하기가 들어왔죠. 그때, 날씨가 추웠을 뿐 아니라 식량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 사람의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흑사병이 돌게 되죠. 유럽 같은 경우 인구의 1/3 정도가 흑사병으로 사망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죽어 나가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때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했던 게, '유대인이 우물 에다가 독을 뒀다', '마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비합리적인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그 당시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소수였죠. 마녀를 포함해서 수십만 명을 불태워 죽여요. 마녀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나이 든 여자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입장의 약자를 죽여 나가는 것을 보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출처: 게티이미지

신아영 인종 차별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이슈가 터지면서, 위기가 닥치니까 이런 민낯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단적으로 국적, 나이 상관없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받은 사례, 기사도 있고요. 얼마나 유통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티셔츠에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도 등장했습니다.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튼 쌤 저도 느낀 게, '하필이면 왜 출발이 중국이었을까. 만

약에 프랑스 파리였다면 혐오보다는 'Pray for Paris' 이런 게 더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필 중국이니까.

신아영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타일러 씨는 인종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종 차별에 대한 생각은?

타일러 인종 차별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차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발생하는데, '그거 인종 차별이다'라고 바로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중국인을 비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이걸, 인종 차별인가요?

신아영 흠...

타일러 어렵죠?

신아영 퀴즈인가요? 정답이 있는 퀴즈인가요.

튼 쌤 저는 편견 정도?

타일러 어렵죠? 인종 차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별인 것 같죠?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어야 인종 차별이란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뒤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을 하는지',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한 사회학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해야 해요. 이론적인 정리를 바탕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차별을 막으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신아영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서의동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타일러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라는 것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정당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신아영 <굿 피스> 시즌3 주제 나왔습니다. ‘차별이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이 되겠지만, ‘가짜뉴

스에는 백신도 없다. 가짜뉴스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

서의동 독일 같은 경우는 입법을 해서 가짜뉴스가 명백한데, 삭제하지 않는 경우는 엄청난 벌금을 매기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신아영 2018년부터 가짜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최고 5천만 유로, 640억 원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의동 가짜뉴스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신아영 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돈 쌤 주로 플랫폼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플랫폼에도 책임을 줘야 된다. 예전에 중고거래하면 사기꾼 많다고, 사기꾼의 내역을 공개하는 더치트 같은 게 나왔잖습니까. 더치트처럼 가



짜뉴스를 검색해서 빨리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랫폼끼리 연합을 해서 가짜뉴스 링크가 떼을 때, 가짜라고 검색된 것들은 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보를 취합하는 게 능력이었다가, 이제는 정보를 걸러내는 게 능력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적인 백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신아영 타일러 씨는요?

타일러 요즘에 미디어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영상편집 해보셨어요?

돈 쌤 기초적인 것만요.

타일러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편집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살짝만 편집이 되어도, '이 부분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바뀌서 보내줬네'라고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이 보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영상편집'이나 '음성파일',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의 글에 대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누구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있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 구분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콘셉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신아영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타일러 깜짝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생방송이 아닌데도 그게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현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표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서의동 굉장히 압축된 건데.

타일러 2주, 3주, 1년 전에 찍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나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상태가 위험하다고 봐요. 빨간 불이 켜져야 하지 않나.

서의동 뉴스도 보면 분명하게 자료화면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하거든요. 오늘 찍은 건지, 정치인의 얼굴이 정치 사건에 따라서 표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의 자료화면이라고 표시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죠.

신아영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굿 피스> 시즌2는 4월 며칠이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타일러 4월 21일.

신아영 4월 21일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가짜뉴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는 게, 북한 관련 뉴스인 거 같기도 해요. 혹시, 들어 본 것 중에서 가장 황당한 북한 관련 뉴스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김일성의 흑이 두 개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도깨비라는 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조금 무서웠죠.

북한 관련 가짜뉴스

서의동 흑은 있었어요.

신아영 그래서 흑부리 아저씨처럼 흑이 두 개라는 소문이….

서의동 옛날에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흑부리 영감 같은.

신아영 그게 가장 황당한 가짜뉴스이지 않을까 합니다.

서의동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 중병설이 나돌았는데, 1986년에도 비슷한 설이 있었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김



일성 주석이 죽은 게 1994년인데, 8년 전에 죽었다고 보도가 나왔죠.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이 어딘가에서 도는 설을 듣고, 죽었다고 보도를 냈죠. 웃기는 것은 그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한국 언론이 다 따라서 보도를 낸 거예요. 죽었다고.

튼 쌤 워낙 특종이었으니까.

서의동 그래서 따라 한 거죠.

첫 보도가 나오고 사흘 뒤에 김일성 주석이 몽골에서 온 국가 원수를 만나러 공항에 나와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오보로 판명이 났었죠.

튼 쌤 북한이 부활의 땅이잖아요.

조천호 부활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신아영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황당한 가짜뉴스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가짜뉴스에 더 현혹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의동 기자님께서 진짜 평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튼 쌤 재밌네.

신아영 우와.



서의동 북한 평양의 최근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그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시각을 바꿔주는 거 같아요. 식량난이나 탈북자,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니면 이제 미사일 발사 같은 정형화된 시각을 바꿔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들이 뉴스들에 가려지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실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얼마나 달라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비판하는 쪽에서는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는 상당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신아영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엽기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와요. 이 영상도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잖아요. 하지만 평양 브이로그를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충격적이예요.

타일러 평범한 건 아니죠.

튼 쌤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잖아요.

서의동 아까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평양의 모습을 보면, 평양에서 이뤄지는 일상이 최근에 탈북한 탈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증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양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튼 쌤 지방은 어떻습니까?

서의동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는 분명히 있겠죠. 물론 그 격차도 우리의 70~80년 시대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이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메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아영 평화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살펴보고 2020년 평화 이슈를 탐구해보는 <굿 피스> 시즌2. 인물, 경제, 이슈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조천호 오늘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굉장히 어렵게 살 텐데' 하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하고, 또 사회를 나가서도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연대하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함께하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 행복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아영 돈쌈은요?

돈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인류 역사상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여행 같은 것도 개인이 쉽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했던 시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가 누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평화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나 느꼈습니다.

저는 요즘 하고 다니는 마스크에 평화를 비유하고 싶어요. 특수한 작업을 할 때나 쓰는 흔한 물건이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게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스크처럼 없으면 귀해지는 것이 평화라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사회적으로



많아져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의동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틀림과 다름은 다르다'. 다름은 있어도, 틀림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는 게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큰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도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다르게 존재하면서도 같은 이익을 찾아가면, 조화롭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오늘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식의 구동존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거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는 태도가 평화 감수성도 같이 높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타일러 저는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리셰 같은 면서도 어려운 주제인 평화를 폭넓게 접근하니까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도적인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사물을 존중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면 평화와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아영 평화는 존중이다. 평화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돈쌌 같은 경우에는 평화란 마스크다.

조천호님은 평화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조천호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신아영 함께.

함께 행복하기 위한 삶
거기에 평화가 있지 않을까

조천호 네. 돌보고, 나누고, 아끼며.

신아영 말은 다르지만, 결은 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화를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굿 피스> 함께하시면서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사회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멤버 그대로 시즌3 '차별'을 기약하며, 인사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발행일 2020년 8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담당자: 김영경 주무관)

주 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 901-7166 FAX 02) 901-7029

www.uniedu.go.kr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2) 2275-5326

비매품

